

볼트만의 十字架 理解

安 炳 茂

야스퍼스가 脫神話化論 논쟁에 있어서 볼트만을 정통적인 보수주의적 신학자라고 본 것은 볼트만의 신학의 거점을 바로 지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볼트만의 신학이 마치 그의 脫神話化論에 집약된 듯한 인상과 그러므로 극단의 지성주의자요, 소위 세속화의 선구를 이루고 있는 듯한 인상이 우리 나라에 유포되고 있는 것은 그의 바른 이해를 위해 유감된 일이며 또 소위 實存主義 神學이란 이름 밑에 하나의 시대 思潮에 호응하려는 것이 그의 신학의 내용인 듯한 인상을 준 것도 그를 이해하는 데 不幸한 일이다. 脫神話化論이나 실존적인 이해란 것은 사실상 그의 성서 연구에서 오는 副次的인 所産이고 그의 신학의 내용은 아닌 것이며, 그의 이해를 위의 所論에서 出發하면 극히 위험한 오해에 이를 것이다.

그의 신학의 대상은 바로 성서이

며, 그의 신학의 목적은 성서로 하여금 말하게 하자는 것이며, 그의 신학의 자료는 바로 Kerygma인 것이다. 그런 고로 우리는 그를 어떤 사상가로 다루기 전에 또 어떤 신학체계의 수립자로서 보고 시비하기 전에 신약성서 신학자로서의 그의 이해를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를 非是할 때에 그의 인식론이나 또는 그의 實存觀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구체적으로 성서의 하나하나의 Text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문제시해야 한다.

그의 사상은 철두철미 성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독교를 하나의 사상으로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성서를 하나님의 事件의 케뤼그마로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가 그의 과제이며, 기독교를 이 時代의 思潮에 어떻게 적응 시키느냐가 관심사가 아니고 케뤼그마의 내용을 이 時代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 時代의思潮 그 중에서도 세계관이나 人間觀을 앞에 놓고 사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서 자체를 해석함에서 온 것이다. 우리는 그의——비록 量的으로 많지 않으나——著作의 노력, 가령 그의 초기 論文 “바울 說敎의 文體와 犬儒派—스토아派의 디아르티베”(1910)나 그의 가장 대표적인 ‘요한福音 주석’과 공관복음을 연구서인 ‘공관복음 전승사’(1921)만 보더라도 그가 성서의 말씀 한마디, 한 단어를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으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에게는 한 단어의 동사의 형이 문제이며 그 文體에서 호르고 있는 호흡에 귀를 모으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사실의 두 다른 표현과 그 양식이 다르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마디를 더 붙이거나 변동한 그 뒤에 숨은 필연적인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 들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이해 또는 비판하려면 그의 성서 해석과 대결해야지 그렇지 않은 是非는 언제나 我田引水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결론을 왈가왈부하지 말고 왜 그의 결론이 그래야 했느냐에까지 가야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그의 성서해석의 正誤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

리는 몇가지 例를 들어서 그의 立場을 보기로 하자.

1. 그의 Kerygma 理解

그의 기독교 이해는 곧 그의 Kerygma의 이해인 것이다. 즉 그의 신학의 대상이 케류그마인 것이다. 그런데 볼트만에 의하면 초대 교회의 케류그마의 내용은 신앙과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 말은 Kerygma의 내용이 史的 예수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약신학에서 史的 예수와 가르침이 신약신학의 前提이기는 하나 그 內容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立場은 史的 예수에 대한 不可知論에 빠졌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케류그마 自體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는 그의 ‘공관서의 傳承史’에서 공관서를 양식사적 방법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결론으로서 공관서에 史的인 한 人格이 그 중심에 있고 그의 생애를 歷史的, 전기적으로 서술한 것인 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공관서는 한 전기로서는 너무나도 지루되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고, 또 史的 예수의 삶의 기록으로서도 너무나 전후 관계에 공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볼트만에 의하면 공관서는 이미 전승된 전통을 바탕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공관서(그 시초인 마가복음)는 이미 있는 전승이란 그의 구술을 살로 채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하면 공관서는 전승된 케류그마를 보충하고 예증했을 따름이다. 원시 교회의 '케류그마'가 헬레니즘의 領域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은 원시 교회의 전통에 저속되고 있는 바울의 편지에서(롬 1:3-4; 6:3-4; 10:9, 고전 11:23-26; 15:3-7; 필 2:6-11, 그리고 행 2:22-24; 3:13-15; 10:37-41; 13:26-31 등)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뚜렷한 것은 선교된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그리스도 선교의 전편에는 구속의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이뤄졌고, 이 구속의 사건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세례와 주의 성찬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에 관한 '케류그마'는 '禮拜의 傳言'(Kultuslegende)이며, 복음서는 '확대된 禮拜의 傳言'인 것이다. 즉 복음서는 전승된 '케류그마'의 立證으로 史的인 예수의 생애를 서술했지, 예수의 생애에서 귀납하여 '케류그마'가 형성된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文獻 形成 과정에

서 본 결론이고 史的인 예수와 케류그마의 형성과정과는 딴 문제이다). 그런데 史的인 例證이 필요 불가결했던 것은 고전 11:23-26절의 주의만찬과 15:3-7절의 부활의 '케류그마'에서 엿볼 수 있으며, 사도행전 10:37절 이하와 13:24절 이하의 벌써 '확대된 케류그마'의 始發點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의 세례인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眼目에서 봄으로, 세속적인 領域에서 떼내고 있다. 또 사도행전 2:22; 10:38-39절은 주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로서의 증거로 예증할 필요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땅 위에서 살았고, 고난당하여 죽고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러워진 이로써 서술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方向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중심은 그의 고난과 부활인 것이다.

이러한 전승의 내용을 살려서 마가는 복음의 한 型을 만들어 냈다. 즉 마가는 2:19-20절과 12:1-11절, 그리고 8:31; 9:31절, 10:33-34절의 弟子들에게 준 秘儀的인(esoterische) 교훈 등에서 주의 고난 史의 整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위에 든 弟子들에게 준 교훈에서와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로 임명받은 다음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으므로 세상의 심판을 보이던 그의 생애의 종막으로서의 변화 산상의 애기(9:2-10)로써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즉 마가는 이미 있는 '전승'의 중심인 '수난과 부활'을 초점으로 예수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마가의 입장은 마태나 누가에서 量的으로 확대된 외에는 별로 다를 바 없다.

이상에서 볼 때에 Kerygma의 내용은 결국 十字架와 復活에 집약된 것이며, 그런 까닭에 불트만은 Kerygma核心은 十字架와 부활이며 이 Kerygma를 그리스도교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불트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는 바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이해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불트만에 의하면, 바울의 입장이란 그가 홀로 선 입장이 아니고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된 헬레니즘 교단의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다.

2. 十字架와 復活의 意味

불트만은 그의 십자가의 이해를 그의 신약성서 신학에서 구축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란 항목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

에 의하면 바울에 있어서 예수의 인격과 그의 생애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결정적인 요소, 아니 사실상 오직 유일한 것이다. 그 외에도 언급한 것이 있다면, 예수는 구체적인 인간이고(빌 2:7), 율법 아래서 난 자 즉 유대인이었다는 것 뿐(갈 4:4)이다. 바울은 분명한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 외에는 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고전 2:2), 따라서 그는 '十字架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며(고전 1:23; 2:2), 福音을 '십자가의 말씀'(道)이라고도 한다(고전 1:18).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은 속죄의 제물 또는 '대신 죽은 제물' 또는 '값으로 산' 行爲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제사적—을 법적인(kultisch-juristischen) 사고에서 온 것이다. 불트만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 '아이온'의 모든 勢力—律法, 罪, 죽음 등—에서 自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行爲를 말한다고 이해하며 그 例證으로 고전 6:20; 7:23; 6:12-20; 7:17-24절 등을 지적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십자가의 사실은 골고다 山上的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인 것이다. 구원자란 個體的 人格이 아니라 宇宙的인

存在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소마'(몸)라고 할 때 史的인 예수의 몸이 아니라 우주적인 무엇(Grösse)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復活은 우주적인 사건이며 한 번 있었던 過去에 속하는 사건이 아니다.

볼트만은 이러한 바울의 십자가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신약과 神話論'이란 論文 중 '그리스도의 事件'이란 항목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신약에서 受肉한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우리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客觀的인 파악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화론적인 설명일 뿐 아니라 신약이 참말하려는 것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파악은 사람이 이미 지은 죄, 또 지을지 모를 죄를 속하므로 형벌을 면케 한다는 정도의 표현에서 그치는데, 신약에서의 십자가의 참 뜻은 우리 죄를 사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 내시는"(골 2:13-14) 십자가의 의미 즉 사람을 지배하는 모든 세력에서

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볼트만에 의하면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처럼 우주적인 사건으로 파악함으로써 제사적—율법적인 파악을 지양하였으며 그렇게 하므로써 人間史의 영역밖의 사건으로 이해한 十字架의 사실을 우리의 역사적인 운명과 적결된 사건으로 이해했다. 즉 십자가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세상의 支配力을 모두 무력화하게 하므로써 세상에 사는 나의 심판이며 동시에 세상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어떤 過去의 時點에서 일어난 사건에 귀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시간 안에서 또한 시간의 彼岸에서의 종말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믿는 자에게 언제나 現在的인 것이다.

볼트만은 神話論的인 틀에 담긴 십자가의 Kerygma를 現在的인 사실로 받아들이므로 그 참 意味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客觀的인 이해에서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떻게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현재적인 사실이 될 수 있는냐를 물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보는 데, 바울은 '사크라멘트'에서 十字架의 사실을 현재화하고 있다. 즉 세대를 통해서 사람(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므로 그 십자가를 현재화한다.

(롬 6:3). '나'는 그와 더불어 十字架에 달린다(롬 6:6). 즉 십자가는 과거사가 아니고 내일이다. 주의성찬에 참여하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現在性を 전하며(고전 11:26), 그의 십자가와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전 10:16).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現在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갈 5:24).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갈 6:14)고 한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十字架란 과거를 客觀化하지 않고 내일로, 고난에 참여하므로 내 고난으로 할 것을 말한다(빌 3:10). 즉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그의 생명을 현재화 한다고 한다(고후 4:10-11). 이렇게 하므로 바울은 과거사로서 十字架를 실존적인 사건으로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十字架의 이해와 復活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볼트만에 의하면 Kerygma에서 復活이란 십자가와 분리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復活이란 십자가와 더불어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통일되어 있

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참 삶의 可能性을 창조했다는 뜻이다. 부활이란 볼트만에 의하면 그 自體로서는 史的인 사건이 아니고 信仰의 대상이다. 復活이란 죽음 이전으로 환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十字架에 달린 이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승리했다는 意味인 것이다. 그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그의 부활은 내 새 삶의 가능성 즉 하나님께 향해 산다는 의미다(롬 6:11). 그러므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죄에서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롬 6:11이하) 어둠의 일을 거부하고 낮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롬 13:12-13).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낮에 속했다(살전 5:5-8).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은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과 동일한 일이다. 그의 고난에 참여함은 그의 삶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고전 4:10-11). 이로써 십자가와 부활이란 사실은 어느 과거의 時點에서 생긴 일도 아니고 또 내 손이 미칠 수 없는 彼岸에서 되는 일도 아니고, 바로 내 일인 것이다. 그런 고로 볼트만의 신학은 곧 人間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볼트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형식주의를 바꾸어서 "우리는 먼

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十字架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十字架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더듬을 때 문제되는 것은 史的인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사실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점이다.

3. 史的 예수와

케류그마의 그리스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그가 1958년에 Heidelberg에서 한 강연 —“역사적 예수에 대한 原初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 宣敎”(2판 1961)—에서 구체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강연은 역사적 예수를 케류그마의 틀에서 풀어 놓음과 동시에 史的 예수와 Kerygma의 연속성을 찾으려는 요즘 神學界의 동향을 전제할 것인데 그는 이 연속성의 문제를 ① 史的 예수의 한 일—또 그의 宣敎—과 원시 그리스도교의 케류그마의 史的인 연속성과 ② 예수와 Kerygma의 內容的 관계(Sachlichen Verhältnissen)에 관한 물음이라고 규정하고, 그는 그의 입장을 대략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선 그는 그의 재래의

理解를 요약하여,

① 역사적 人格인 예수가(공관복음에서 비판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케류그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神話的 人物로 바뀌어졌다.

② 예수의 說敎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종말적 使信에 대해서 케류그마는 人間 죄의 대속자로서 十字架에 죽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그리스도가 宣敎되고 있다.

③ 예수는 종말적 사실과 함께 사랑을 하나님의 뜻으로 철저화하여 그 앞에 철저한 복종을 절규한 데 대해 ‘그리스도—케류그마’에서는 윤리적인 說敎를 취급하기는 했으나 예수를 통해서 해석된 공관서의 사랑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틀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가?

볼트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史的 예수가 아니고 케류그마의 그리스도라는 그 성서 연구의 결론이 一般에게 오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自己는 예수와 케류그마의 그리스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지 史的 예수와 원시 그리스도교의 宣敎가 관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 입장을 밝힌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Kerygma는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史的인 예수를 一致시킨 것이 사실이며, 이 전제 없는 Kerygma의 成立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케류그마는 史的 예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케류그마의 그리스도는 史的 예수와 內容의으로 관련이 없다. 그들은 예수라는 사실(Dass)만을 대상으로 했지 누가(Was), 어떻게(Wie)라는 것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공관서의 예수의生涯는 누가, 어떻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있을 것이나, 복음서는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그리스도 케류그마', 그중에도 十字架와 고난의 意味의 例證으로써 서술했지 그 Kerygma의 史的 生의 眞연성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그는 바울과 요한의 경우를 든다. 바울은 그의 十字架와 부활을 선교할 뿐 예수의 人格이나 그의 교훈은 취급하지 않는다(갈 3:1). 그런데 十字架도 傳記的인 眼目에서 이해하지 않고 구속의 事件으로서 이해한다. 바울은 그의 복종과 견비를 말한다(빌 2:6-9; 롬 15:3; 고후 8:9). 그러나 그것은 先在的인 그를 말하는 것이지 史的 예수를 말함이 아니다. 더우기 史的 예수의 종말적인 宣敎나 그의 윤리적인 교훈은 바울의 선교에서 별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실상 바울은 주의 말로써 취급한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두 구절밖에 없고 (이것은

그의 논문 "바울 신학에 있어서의 史的 예수의 의미에서 자세히 취급하고 있다), 예수의 설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되고 그 대신 하나님의 義가 대치되어 있는 것이며, 그의 神學의 中心이 되는 律法 이해의 전개에서 예수의 말을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있다. 또한 요한도 예수의 人間性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공관서의 그 예수는 아니고 오직 예수라는 사실(Dass)를 自己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블트만은 공관서에서 歷史的 예수의 was와 wie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는 크게 조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의 윤곽을 그린다. 예수의 특성으로서 마귀를 쫓는 일, 安息日의 계명과의 충돌, 정결에 관한 율법의 철폐, 유대 律法主義者와의 대결, 세리와 창기같은 버림받은 者들과의 사귄, 부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 등이며 그 외에 예수는 세례요한 같은 苦行主義者가 아니었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 이'였고, 끝으로 그가 弟子를 부르고 적은 무리의 추종자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좀더 내용적인 것을 지적한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使僞를 알리고 거기로 부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使命을 받은 의

의 즉 預言者의 自覺 그의 판단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로서의 자각이 그것이다.

以上에서 보아 注目할 것은 볼트만은 예수의 고난사와 관련된 그의 그 自身の 死에 대한 의식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볼트만은 예수가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규명할 재료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의 弟子인 보른캄이 그의 '나사렛 예수'에서 예수가 최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성전을 中心한 聖都에서 최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만일 그렇다면 예수는 로마의 官權에 의해 處刑 당할 것을 예상하기 보다 오히려 뒤따른 종말에 의한 最後로 예상했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政治犯으로 오해당하므로 로마의 官權에 의해 十字架에 處刑당했으리라는 사실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볼트만이 위

의 예수의 편모를 말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 추측이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수가 누구였다는 결론에 끌어갈 수 없으며 또 그런 것들이 확실한 것이라고 해도 그 예수가 케류그마의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필연성은 못되는 것이다 (그리나 볼트만은 요즘 Conzelmann 등이 위의 사실 중 특히 예수의 마지막 때의 全權的 意識(Vollamchts Bewußtsein)을 '간접적인 그리스도論'이라는 말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中心으로 본 케류그마의 核心인 十字架의 意味는 史的 예수와 연속성이 없다는 그의 立場에 다시 돌아 온 것이다. 결국 볼트만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대상은 史的 예수가 아니고 케류그마의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실로서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내가 그 앞에 決斷 하므로써 되는 일이다.

神學의 變遷에 민감한 著者が 現代神學의 흐름을 친절하게 案内해 준다.

3월 20일 발행

徐 南 同 教授 著

轉換時代의 神學

크라운판 470면 2,800원